

성추행 보복 범죄 친모도 태연히 공모

의붓아버지, 여중생 살해 사건 재구성해 보니

시신은닉 위해 광주서 문경까지...유기 장소 다시 찾기도
성추행 늑장 대응 논란에 경찰 “예측할 수 없었다” 해명

2017년 연말 집에 고의로 불을 내 어린 세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벌였던 범행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친딸 살해 과정에 가담한 비정한 엄마의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대 여중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는 밤새 시신은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까지 미리 챙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자신이 낳은 딸이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모는 이른바 ‘보복성 살인’에 가담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1)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지난 이틀에 걸쳐 사건 경위를 털어냈다. 김씨는 지난 27일 낮 공범인 아내 유모(39)씨,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의붓딸인 중학생 A(12)양이 친아버지와 사는 목포로 향했다. 노끈과 청테이프 등 살해에 사용된 도구는 이틀 전 마트에서 구입했다.

부부는 27일 오후 5시께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양을 승용차에 태웠다. 친모 유씨는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통화해 A양을 집 밖으로 불러냈다. 목포 도심을 벗어나 무안과 경계로 추정되는 농로에 다다른 김씨는 자동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아내 유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두 살배기 아들을 조수석 유아용 카시트에 앉혀둔 채 김씨는 좁은 승용차 안에서 A양을 살해했다. A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친모인 김씨는 운전석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김씨는 살해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동 경로를 떠올려 현장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도구를 준비했고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에 자리를 바꿔 앉아 행동에 옮긴 점 등을 미뤄 부부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양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부부는 곧장 광주 북구의 집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아내와 아들을 집에 내려준 뒤 벽돌이 가득 든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 나섰다. 광주에서 고향인 경북 문경의 한 저수지까지 밤새 차를 몰았다.

김씨는 다시 광주로 돌아와 아내와 평소 드라이브를 즐겼던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28일 동를 무렵 A양 시신을 버렸다.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양

발목에 마대 자루를 하나씩 묶어두는 치밀함이 있었지만 신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허술함을 동시에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오후 들어 아내 유씨와 함께 시신은닉 장소를 다시 찾았다. 저수지 수심이 얇은 데다 한쪽 발목에 묶여둔 마대 자루가 풀리면서 A양 시신이 발견된 이후였다. 현장에는 경찰차가 도착한 상황이었다.

김씨는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김씨는 광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이틀간 조사받으면서 친모 유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시인했다. A양 친모 유씨도 살인 혐의로 30일 오전 9시20분께 긴급 체포됐다.

A양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A양이 의붓아버지로부터 보복살인을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양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광주의 의붓아버지 자택과 목포의 친아버지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A양은 최근 친아버지에게 의붓아버지와 생활하는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친아버지는 지난 9일 목포경찰서에서 관련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김씨와 유씨 부부는 성추행 의혹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을 알아챘다. A양을 향한 김씨의 복수심과 사건을 숨기려는 비정함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가 A양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살인과 별개로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유가족 등은 사건 진정 20여일 만에 A양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의붓아버지로부터 보복 살해를 당하면서 경찰의 대처가 빨랐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처럼 아동 성추행 관련 사건은 가장 중요한 피해진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한다. 목포에서 광주로 서류가 19일에 들어왔고 피해자 진술만 확보한 상태로 이후 우리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송지기자

‘기절 놀이’ 완도 모 고교생 3명 퇴학 학교·도교육청 책임 회피 급급...경찰, 보강 수사

동급생에게 이른바 ‘기절 놀이’ 등 가혹 행위를 한 고교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당초 학교와 교육당국에서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2019년 4월22-23일자 6면)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처분 내용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완도 A고교는 지난 29일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 가운데 3명을 퇴학시키기로 했다. 다른 4명에게는 서면 사과, 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 교육 이수 등 조치를 했다.

A고교는 지난 29일 중간고사 시험이 모두 끝난 후 피해자와 당사자 학생 및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학폭위를 열었다. 학교 측은 가담 정도,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가해 학생들은 기숙사, 교실 등에서 동급생 9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십만원의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뺨을 때려 깨우고 다른 학생들은 웃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A고교는 가해학생들이 상습적 가혹행위를 일삼았지만, 이를 인지하고도 늑장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숙 학교 특성상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만 내려졌을 뿐 학교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2차피해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들은 학폭위 결과를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 됐다. 통상적으로 사건의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은 학폭위에 참석해 격리된 상태에서 상황 및 사실 등에 대해 진술을 한 후 최종적인 처분 결정은 학교에서 등기로 익일 발송해 이틀날 받게 된다.

이날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 퇴학처분 결과를 접하게 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 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해 학폭위를 뒤늦게 열게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학생 신변보호와도 관련된 일인데, 이렇게 결과가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 교육당국의 관리 미흡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A고교와 도교육청,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완도경찰서는 학폭위 결과가 유출된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학폭위의 결과만 받아볼 뿐 이밖에 다른 어떤 정보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학폭위 구성 위원도 비공개인데, 다른 경로를 통해 내용이 유출된 것 같다. 이에 대한 경위는 알아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1학년 학생 80여명을 전수 조사해 7명을 가해자로 분류했다. 현재까지 피해 학생 9명, 가해학생 7명에 대한 1차 조사만 마친 상황으로 추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송지기자

박병종 전 고흥군수·공무원 6명 출국금지

경찰이 콘도 개발 과정에서 배임 의혹을 받는 박병종 전 고흥군수와 공무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흥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군수와 공무원 6명에 대해 이달 초 출국금지 조치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고흥군 주민 1천명은 앞서 박 전 군수가 2015년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 등으로 11억원만원을 지급한 뒤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싼값에 건설사에 부지를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고흥군이 공인 부지 3만2천109㎡를 건설사에 콘도 용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천여만원보다 싼 8억9천여만원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토지 보상금 중복 지급 등 문 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업체와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신용원기자

“순간적인 욕심에 그만”

○...자신이 근무했던 성인오락실에 몰래 들어가 게임기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서 행.

○...3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따르면 A(23)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광산구의 한 성인오락실 한 게임기에 보

관 중인 62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간 혐의.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오락실에서 일한 A씨가 비상문이 열려 있는 점과 특정 게임기에 돈이 보관돼 있는 것을 알고 순간적인 욕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는 되겠냐”고 일침.

/광산=고훈식기자

‘스쿨 미투’ 광주 교육공무원 중징계

광주 일선 학교 공무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스쿨 미투’로 홍역을 치렀던 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북구

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감사와 징계위원회의를 거쳐 불필요한 접촉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에도 A씨를 고발했다. 지난해 4개 중·고등학교에서 학내 미투 사건이 발생해 교장 1명을 비롯해 교사 40여명이 가해교사로 분류돼 수사

의뢰되거나 집중 감사를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어서 시교육청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스쿨 미투 사건 당시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징직 3개월이나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던 전례에 비춰볼 때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민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야외 결혼식

칠순잔치

체육대회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

CMYK